

■ 24년만의 재창단...광주시립극단 '세익스피어 in 광주' 19~20일 문예회관

조선 민초들 삶 속 세익스피어 보이네

"이 부분에서는 춤을 춘다는 느낌 보다는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절도 있고 강하게 뛰어서 해주세요." 지난 10일 빛고을 아트센터 5층 광주 시립극단 연습실. 15명의 남녀 배우들이 안무를 맡고 있는 전지옥씨의 지도를 받으며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 한쪽에서는 뒤늦게 도착한 배우들이 몸을 풀고 이웃한 또 다른 연습실에서는 소품 제작이 한창이었다. 24년만에 재창단된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의 창단 작품 연습 현장의 열기는 한여름의 그것만큼 뜨거웠다.

광주시립극단은 19~2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

광주 투쟁의 역사 뮤지컬로 담아내

햄릿·리어왕 등 대사·장면 불거리

20명 시민 배우들과 뜻 깊은 무대



24년만에 재창단된 광주시립극단의 '세익스피어 in 광주' 연습장면.

<광주시립극단 제공>

관 대극장에서 '세익스피어 in 광주'를 무대에 올린다. 유명 희곡작가 배삼식의 원작을 연출자 김지훈씨가 각색한 '세익스피어 in 광주'는 '리어왕', '햄릿' 등 세익스피어 작품과 광주학생운동, 5·18 등 광주의 이야기를 씨屎과 날실로 엮어 만든 뮤지컬이다.

작품의 배경은 조선시대 말 어등산 아래의 절골마을. 두 자매가 운명하는 객주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음모와 암투, 절대적 악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해학적으로 그려진다.

배경은 조선시대지만 '맥베스' '오펠로' 등 37편에 걸친 세익스피어 작품이 극중 인물들의 대사와 장면 등에 수시로 등장, 극적 재미를 더하는 것도 이번 연극의 특징이다.

'만약에 세익스피어 없었다면' 등 최인양씨가 작곡한 18곡의 뮤지컬 넘버가 불려지며 뮤지컬 전문오페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를 들려준다. 또 광주의 근현대사를 담은 사진과 영상, 고씨음에 쓰일 대형 고를 제작하는 장면 등 불거리도 많다.

'세익스피어 in 광주'는 50여명의 배우가 출연하는 메

며드 무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지금까지 광주연극협회 합동공연 등을 제외하고는 개별 극단들의 공연이 대부분이었던 터라 지역에서 제작하는 대형작품은 거의 없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채민석씨를 비롯해 윤희철·고난영·유지영·이현기·정순기·박영진·김종필·정경아·임홍석·양정인씨 등 지역의 대표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다.

이번 작품에는 특히 반가운 얼굴이 있다. 촌장 역을 맡은 배우 한중곤(53)씨다. 그는 해체 되기 전의 광주시립극단에서 1987년까지 활동했었다. 제1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던 극단 시민의 '소작자'에도 현박윤모 예술감독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던 한씨는 1992년 '도적들의 무도회'에 출연한 것을 마지막으로 광주를 떠났었다.

러시아 슈킨 연극대학에서 4년동안 공부하고 경기도립극단 등에서 활동했던 한씨는 꼭 20년만에 다시 광주 후배들과 무대에 서게 됐다.

또 역시 광주시립극단 단원이었던 화가 정성섭, 연극계 선배들인 정관섭·김종진씨 등도 무대에 오른다.

그밖에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20~60대 20여명의 시민배우들과 강운태 광주시장 등 유명인사들도 카메오로 출연한다.

한씨는 "오랫만에 후배들과 공연하니 힘들어도 즐겁다"며 "광주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뮤지컬 형식의 작품이고 버라이어티한 내용들이 많이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작에 광주의 이야기를 덧붙여 작품을 만들었죠. 어디든지 권력 다툼은 있었고, 승자들은 민중을 탄압했고, 그 속에서 항거가 일어났죠. 그런 광주의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역사에서 언제나 절대자는 단죄되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다른 결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동중인 연출가 김지훈씨는 "공연 사정 상 무대 셋업 시간이 짧아 무대를 자주 변환시키기보다는 영상으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러닝타임은 휴식 시간 포함 2시간 30분이다.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 문의 062-511-2759.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코끼리 왕 바비' 내일 광주문예회관

아이에게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행기면 좋을 공연 소식이다.

어린이를 위한 '해설과 함께 피아노로 듣는 동화이야기' 세 번째 무대 '코끼리 왕 바비'가 14일 오후 4시 광주문예회관 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피아노를 배우는 어린이들이 한번쯤 연주했을 모차르트의 소나ти네 16번 등과 모차르트가 6살 이전에 작곡한 곡들을 들려준다.

모차르트 소나티네는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

하고 있음에도 난이도가 쉽다는 이유에서 공식 연주회장에서는 잘 연주되고 있지 않는 곡이다.

동화와 피아노 연주가 어우러진 작품도 연주된다.

뿔랑의 '코끼리 왕 바비'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 드 브루노프의 동화에 음악을 부친 곡이다.

피아니스트 김정아(광주대 음악학과)교수가 연주하며 소프라노 남하린(동아방송 아나운서)씨가 이야기를 들려준다.

티켓 가격 어린이 5000원, 청소년·일반 1만원. 문의 010-6331-6834. /김미온기자 mekim@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한국·미국·영국·독일·캐나다·덴마크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던롭필로 라텍스 침대 150평
세계최고 수면과학 던롭필로 Duniopillo
고객님의 매트리스는 아래와 같습니까?

머리 5% 어깨 15% 척추 60% 엉덩이 15% 허벅지 5% 종아리 5% 다리 5%
수면시 힘의 분포도



NAVER

홍스페이스

검색

쇼핑몰 www.hong79.com(홍친구닷컴)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장동도터리)

가구빌딩 450평 / 매트리스 체험관 오픈!

☎ 1899-0240

홍스페이스 SPACE

어디로 갈까... 설레는 여행길

이성태 개인전 20일까지 롯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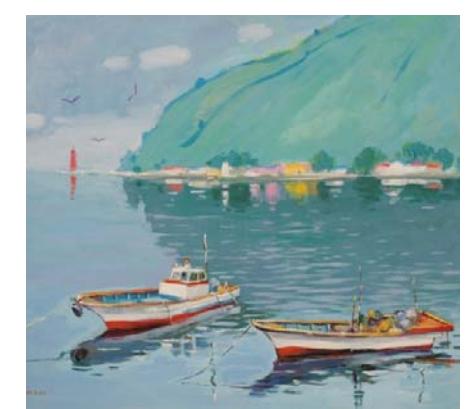
어디로 갈까. 본격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떠나고 싶은 마음으로 설레는 시기다.

그래서인지 여행에 대한 향수와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롯데갤러리 광주점은 13일부터 20일까지 '여행길에 만난 풍경, 그리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서양화가 이성태씨의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 출신인 이씨가 국내외를 다니면서 접한 나라의 이국적 분위기를 담은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뒹굴 마을', '거제의 바다' 등의 작품은 시원하면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광주 삼성전자 생활가전부에 근무하면서 출장길에 접한 나라의 이국적 분위기를 담은 작품도 적지 않다. 베트남의 북적거림이나 프라하의 아름다움, 맥시코·독일·인도



'당끌마을'

여행 풍경을 묘사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떠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한다.

문의 062-221-1808.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친 마음 가곡으로 토닥토닥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오늘 조선대병원

병원에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울려 퍼진다.
한달에 한번(매월 두번째 금요일) 모여 아름다운 노랫말의 우리 가곡을 부르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우)가 13일 오후 7시30분 조선대 병원 로비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다리는 마음', '선구자', '얼굴', '님이 오시는지' '가고파' '그리운 금강산' 등 친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초청 성악가는 소프라노 박수연씨와 바리톤 김제선씨가 출연한다. 두 사람은 '꽃구름 속에', '들꽃 그리고 5월', '맛제비 명태'를 들려준다.

8월 행사는 열리지 않으며 9월부터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리운에서 모임을 갖는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온기자 mekim@

바리톤 김제선씨의 노래 등을 부른다.

제 회자를 낸 바 있으며 지금까지 평산 신씨 보감, 청소년 보호교재 등을 발간, 전국에 배포했다.

문의 062-234-2655.
/김미온기자 mekim@

평산 신씨 광주·전남 화수회지 2집 출간



제 회자를 낸 바 있으며 지금까지 평산 신씨 보감, 청소년 보호교재 등을 발간, 전국에 배포했다.

문의 062-234-2655.

/김미온기자 mekim@